

## 〈그림2〉 벨라스케스와 피카소의 마르가리타 공주



(좌) Diego Velázquez, Infanta Margarita Maria, 1654

(우) Pablo Picasso, Infanta Margarita Maria, 1957

© 2022 – Succession Pablo Picasso – SACK (Korea)

길림양행이라고 들어봤어? 잘 모르지? 견과류 납품하는 회사야. 윤문현 사장이 스물여덟 살이던 2006년에 선친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는데, 그때 회사 부채가 무려 100억 원이었대.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영업하면서 꾸준히 성장했지.

2012년 세간을 휩쓴 히트상품을 기억하니?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큰 화제가 됐거든. 윤 사장이 이 아이디어를 피카소처럼 모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바로 허니버터 아몬드! 이것 하나로 2년 만에 영업이익이 16배 늘었대.

윤 사장은 허니버터맛 외에도 와사비맛, 군옥수수맛, 마늘빵맛, 김맛, 톡톡캔디맛 등 34가지나 개발했어. 그렇게 다양한 맛을 어떻게 개발했나 궁금했는데, 일단 여러 아이디어를 시도해본 다음에 두 가지 맛, 즉 대중적이거나 마니아를 사로잡는 맛을 선정한다더라.

이런 노력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결실이 컸어. 명동에 가면 지하에 엄청나게 큰 매장도 있었지.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들르는 명소가 되어 중국사람들은 박스째 사가곤 했어. 재밌게도 나라마다 좋아하는 맛이 다르다더라. 홍콩에서는 와사비맛 아몬드가 가장 잘 팔린대. 와사비의 본고장 일본에서는 김맛 아몬드, 미국에서는 톡톡캔디맛 아몬드.